

2011.03.28 미래정책연구실

□ 우크라이나 의외 곡물 수출세 부과 법안 통과

1. Bloomberg(2011.03.24) 주요 내용

○ 지난 21일 **우크라이나 최고회의에서 곡물 수출세 부과 법안을 승인**했다고 AFPL(Association of Farmers and Private Landowners)의 Mykola Markevych 회장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함.

※ AFPL은 우크라이나 내의 43,000개 농장과 3,000명의 농업인을 대표하는 기구임.

- 러시아와 CIS 국가의 농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AgriMarket.Info에서도 곡물 수출세 통과를 기사화함.

○ 수출세는 지난 10월 여름 가뭄 이후 수확기까지 자국내 곡물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했던 밀, 보리, 옥수수의 **수출쿼터제를 대체**할 것으로 보임.

- 품목별로 밀 9%, 보리 14%, 옥수수 12%의 수출세가 부과됨.

○ 이번 법령에 대해 의회와 정부 모두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으며, 블룸버그지의 확인 요청에 대한 응답도 아직 없다고 보도함.

2. Financial Times(2011.03.21) 주요 내용

○ 주요 곡물 수출국인 우크라이나가 최근 농산물 수출 제한을 강화하려는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보도됨.

○ 동유럽권의 투자자에게 큰 영향력을 가진 독일경제동방위원회(Ost-Ausschuss)는 Viktor Yanukovich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곡물 수출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행사할 수 있는 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함.

- 이번 법률안을 통해 정부가 곡물 수출을 독점함으로써, 우크라이나 농업인들의 소득 감소를 야기할 수 있으며, 곡물생산 및 수출시설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을 몰아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 정부의 독점으로 인해 농가수취가격이 하락하고, 기본적인 생산비보다 낮은 수준까지 농가소득이 감소할 경우, 우크라이나의 농업생산 기반이 붕괴되어 생산 감소로 이어진다면 생산량에 타격을 주어, 자국 내 시장 뿐만 아니라 전세계 곡물시장이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함.

- 결과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우크라이나의 투자 신뢰도를 하락시킬 것이며, 이는 WTO 가이드라인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함.

○ 지난 10월 러시아의 곡물수출제한조치와 우크라이나 수출제한조치로 인해 국제 곡물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우크라이나 수출시설에 투자해온 카길·ADM 등의 곡물메이저들 또한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에 항의하고 있음.

3. 시사점

○ 당초 정부의 수출 통제와 독점력을 강화하는 이번 법안은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인해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게 대두되었음. 그러나 예상과 달리 곡물 수출세 부과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크라이나로부터 주로 곡물을 수입하는 국가들, 특히 독일 등 유럽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됨.

○ 우크라이나는 자국 내 곡물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출세를 도입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음. 그러나 지난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의 수출제한조치 이후에 곡물가격이 급등한 전례를 볼 때, 세계 곡물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한 클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높은 곡물 수입 의존도를 고려할 때, WTO 원칙에 위배되는 곡물 수출국의 시장 왜곡 조치에 대해 예의 주시할 필요성이 있음.

*자료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